

| 서울예장RC, 성라자로 마을 봉사 및 자매클럽 일본 요나고동RC 방문

서울예장 로타리클럽은 지난 6월 25일 스폰서 로타랙트인 숙명 로타랙트클럽 회원들과 함께, 성라자로마을 (경기도 의왕 소재)에서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성당 내부 및 외부 청소를 한 뒤, 한센병의 환우들과 함께 노래와 율동시간을 통해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준비한 다과와 함께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서울예장 로타리클럽은 라자로 마을돕기 자선 정기음악회 제35회 <그대있음에 - 모짜르트의 마술피리>를 지난 5월 10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여 공연수익을 전액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예장RC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동준모 직전회장 등 7명이 자매 로타리클럽 일본 요나고동 로타리클럽을 방문, 한일 자매클럽간의 친선과 우정의 시간을 함께 했다.



| 서울리더스RC, 탈북청소년학교 물망초 후원 및 정기봉사

서울리더스클럽(직전회장 권오경) 회원들은 지난 6월 11일(일) 탈북청소년학교(물망초)를 방문하여 후원 및 정기봉사(년2회)를 실시했다. 본 클럽 김종철 (전)회장이 치과의로 봉사를 하고 있는 물망초학교에 클럽 회원들이 작년 12월부터 정기적인 후원 및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후, 평소 회원들이 식사비 등을 절약하여 모은 100만원을 전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 및 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직접 낫을 갈아 학교 교정에 자란 잡초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쓰레기를 정리하여 쾌적한 학교로 바꾸는 환경정화활동을 무사히 잘 마쳤다. 이에 더하여 다문화가정 어린이 후원도 병행키로 하고 본 클럽의 강석희변호사가 지속적으로 후원 및 봉사를 하고 있는 부천의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작게나마 정성을 모아 전하기로 했다.



| 서울마포RC, 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560명 점심식사 대접



서울마포 로타리클럽(회장 윤성주)은 양원지역봉사회(회장 이선재 : 일성여중고학생봉사단체)와 2017삼복맞이 어르신 식사대접 봉사주간으로 설정, 마포관내 저소득 어르신 등 560분에게 7월4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관내 주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로타리봉사목표 중 하나인 비문해해소에 관한 설명과 함께 건강한 삼복나기 이야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총소요 예산은 약600만원이었으며 로타리 회원과 함께 양원지역봉사회 학생들의 적극 참여로 봉사주간 내내 보람있는 시간이었음을 모두가 공유하고 향후 봉사주간에도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 아가페서울RC, 희망실버 요양원서 봉사주회



아가페서울RC(직전회장 도철구)은 지난 5월 3일(수), 경기도 연천군 소재 희망실버 요양원을 찾아 봉사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봉사주회에서 성금전달과 함께 배회권 회원(화백)은 어르신들의 미소를 담은 얼굴그림을 그려 요양원에 기증을 하였다. 자리를 옮겨 도명복 전회장 마련한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로타리 바둑대회, 서울관훈RC 조군환 회원 우승!

한국, 일본, 대만 로타리안 50명 참가, 6월 3~4일 대만 타이베이

글. 서울관훈RC 조군환



한국, 일본, 대만 출신 로타리안들이 바둑으로 친교를 쌓는 국제로타리바둑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시: 2017. 06. 03.(토), 04.(일)

장소: 대만 타이베이시 로사회관 (Rose Garden)

2017. 06. 03.(토) 만찬과 여흥

06. 04.(일) 시합과 시상, 선물교환, 만찬과 여흥

참가인원: 한국 17명, 일본 16명, 대만 17명 총 50명

A조(최강조) 24명

B조(친선조) 26명



시합경과

저는 그날 A조(최강조)에서 5판을 두어서 전승으로 우승하였습니다.

1국: 대만 6단, 백으로 승리

특별한 전투 없이 집바둑으로 승리

2국: 일본 6단, 백으로 승리

난전으로 승부를 알 수 없는 바둑이었으나, 정리가 끝나고 백승

3국: 대만 출신 6단, 흑으로 승리

비교적 무난하게 이긴 바둑이었습니다.

4국: 한국 이재송 감정사, 흑으로 승리

제일 강적을 만났습니다. 이재송 회원이 백으로 포석을 잘하여서 중반 이후까지 제가 불리하였습니다. 중반 후반전에 제가 한 수에 20집 되는 곳을 보강 안 하고 중앙 백대마를 공격하니 이재송회원이 살면 이긴다고 생각하여 아주 소극적으로 2집 내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집 되는 곳을 가일수하니 승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끝내기에서 이재송 회원이 작은 실수를 하여 다행히 제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5국: 대만 6단, 백으로 승리

제가 1, 2, 3, 4국을 연습하자 상대방 대국자가 초반부터 약간 무리하게 전투를 시작.

중반 무렵에 흑대마 사망하여 바둑이 쉽게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축하한다고 하면서, 대국 종료.



종국후 시상과 만찬

한, 일, 대만 3개국 로타리안 회장단들이 서로들 기념품을 선물하면서 내년에 다시 만나 우의를 다질 것을 약속하면서 만찬과 여흥을 시작하였습니다.

대구 출신 로타리안 최철수 사장이 월광대표아적심(등려군 노래, 한국에서 주현미도 부름)을 대만 여가수와 커플처럼 아주 잘 불렀습니다.

짹, 짹, 짹, 역시 대학 재학 시절 대학가요제 준비를 한 사람답게, 국제 로타리안 바둑대회는 한 번 우승하면, 다음부터는 시상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즐기는 바둑. 시간이 되시는 로타리안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